진실을 경험하라 -밀레 MILLET

光州日報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041호 1판 (음력 6월 9일) 2015년 7월 24일 금요일

우암학원 창학65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N TECHNO UNIVERSITY

"대한민국 저력 보여준 광주, 자랑스럽다"

박근혜 대통령과 윤장현 광주시장, 이용대(화순출신) 배드민턴 선수, 이정은(순천출신) 골프 선수 등 참석자들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관계자 초청 오찬'에서 대회성공 개최를 축하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광주시민 200명 등 U대회 성공개최 주역 450명 청와대 오찬

박대통령 "광주의 자존심으로 남을 것…여러분 모두가 MVP"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이번(하계유니버시아드)에 광주에서 보여준 시민정신은 앞으로도 광주의 자존심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시민들의 역량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

〈관련기사 3면〉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연무관에서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한 선수단과 자원봉사자, 서포터스, 조직위 직원 등 관계자들과 오찬을 하고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 국민들에게 큰 기쁨과 세계인에게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준 선수단 여러분들을 환영한다. 그동안 혼신의 노력을 해 오신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다"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광주시와 조직위원회, 자원봉사자와 서포터즈 등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사상 첫 종합 우승을 달성하면서 대한민국의 저력과 역량을 아낌없이 보여줬다"면서 "선수단 여러분의 의지와 투혼에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우리는 이번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를 통해서 한국의 문화역량과 국제대회 개최 능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과 스포츠계도 이구동성으로 성공한 대회라고 찬사를 보냈다"고 평가했다. 또 "알뜰하게 비용을 절감한 저비용 대회, 어려운 국가의 선수들에게 희망을 전달한 배려의 대회, 우리의 문화역량을 아낌없이 유감없이 발휘한 컬쳐버시아드, 큰 사고가 없었던 안전한 대회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나아가 "이처럼 성공적인 대회 개최의 이면에는 대회 관계자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있었다"며 "또한 힘든 일을 도맡아 주신 1만명의 자원봉사자, 5만명의 서포터즈, 넉넉한 인심과 친절을 베풀어 주신 광주시민들이 계셨기에 이번 대회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치하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유니버시아드대회는 최우수선수(MVP)를 따로 선정하지 않는다. 참가자 모두가 MVP라는 마음으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대회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서 "이번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가 MVP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서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면서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윤장현 광주시장은 "국민의 저력을 보았고, 광주시민의 열정을 확인하는 대회였다"며 "이번 성과와 경험은 호남권 발전의 지속 가능한 동력이 될 것이다. U대회 성공 에너지를 모아 자동차·에너지·문화콘텐츠 등 3대 밸리의 꽃을 피워 든든하고 넉넉한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이 문화전당 개관 초기 성패 좌우"

2015지역문화관광포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국내외 경쟁 문화시설과의 차별화가 제시됐다. 문화전당이 신생기관인 만큼 문화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된 이용객 확보가 뒤따라야한다는 지적이다.

23일 오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중회의실에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문화전당 공동주최로 열린 2015지역문화관광포럼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발전전략'토론회에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연구실 정정숙 연구위원이 기조발제(문화예술네트워크 구축방안)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정정숙 연구위원은 문화전당이 수도권과 비교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 문화 소비자들을 끌어 모을 특화된 사업이나 프로그램 개설 여부가 개관 초기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신생 문화전당이 예술의 전당·국립중앙박물관·세종문화회관, 프랑스 퐁피두센터·미국 링컨센터 등 국내외 유명한 문화시설과 유사해 관람객 모집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문화전당의 차별화 전략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광주가 일본의 후쿠오카시와 중국의 홍콩·텐진시 등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아시아 도시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할 뿐만 아니라 비교적 높지 않은 문화도시로서의 연상 이미지를 높이는 노력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전당과 광주시가 한국문화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국내외 분위기를 고려해 ▲광주와 해외 도시와의 폭넓은 네트워크 활용 및 확장 ▲중앙과 시의 적극적 지원 도출 ▲광주의 동아시아 문화수도 선정에 따른 마케팅 ▲호남고속철도 완공에 따른 접근성 강화 홍보 등을 통해 문화전당의 매력을 발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문화전당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당이 문화예술의 중심지인 광주 도심에 위치한 점, 광주와 인접권의 뛰어난 문화자산 및 자연환경, 5·18민주화운동 유적지 내 위치한 점 등을 강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정숙 문화예술연구실 연구위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특성을 강조한 효과적인 홍보와 마케팅 전략을 우선적으로 세워야 한다"면서 "우수한 콘텐츠는 물론이고 방문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된 이용자 계층을 확보하는 한편 문화전당과 광주지역의 연계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태풍 '할롤라' 북상 … 26일부터 영향권

휴일인 26일부터 광주·전남은 북상 중인 제12호 태풍 '할롤라(HALOLA)'의 간접 영향권에 들어 강풍을 동반한 비가 예상된다. 24일 광주·전남은 10~40㎜의 장맛비가 예상되며, 주말인 25일은 대체로 맑겠다.

23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반경 270㎞의 소형급인 태풍 할롤라는 최대 풍속 39㎧의 다소 강한 태풍으로 발달해 시속 14㎞의 속도로 북상 중이다.

광주·전남은 26일 오후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으며, 강한 바람을 동반한 5~20㎜의 비가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이 점차 약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워낙 진로가 유동적이어서 선박관리 등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박기웅기자 pboxer@

학교설립 61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